

‘자동화 시설 무엇때문에 하는가’를 먼저 주지시킨다.

취재 / 이인수 기자

우리나라 양계산업이 타 축산업에 비해 일찍 정착된 만큼 시설자동화에 있어서도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여 왔다.

최근들어 사회구조의 변화로 말미암아 시설자동화는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는데 곳곳에서 갖가지 부작용도 컸던게 사실이다. 계사 시설자동화는 엄밀한 의미에 있어서 종합적인 경영합리화의 목표를 설정한 후 단계적으로 이행해가야 하는게 사실이나 1차산업에서의 종사기피나, 공해방지에 대한 단속에 따른 대처방안으로 한 시설자동화는 아직까지도 적잖은 문제점을 낳고 있는 실



◀정강환 사장

정이다.

양계분야의 시설자동화는 초창기부터 수입품을 부분적으로 설치하거나 모방하여 만든 국내산을 사용해야 했으므로 당초 시설자동화에 대한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본다.

그러나 양계산업의 구조적인 대변화와 더불어 국산기자재의 기술축적도 상당히 이루어져 있고 시설자동화도 일괄체제 형식으로 변모해가고 있어 앞으로는 어떤 형태의 기종이 자기 농장에 적합한가를 고려하여 시설자동화를 해나



가야 할 위치에 와있다고 본다.

양계농가에 보급되어 있는 시설자동화기계 중 쉽게 생각하여 지나치기 쉬운 것이 있다면 바로 온풍기를 꼽을 수 있다. 가장 추운 겨울에 집중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를 제작 공급하는 회사들도 “한철 장사”라는 우스개 소리까지 할 정도로 계절의 영향을 받지만 사용농가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해나간다면 그냥 간단히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고 본다.

수입에만 의존해야 했던 온풍기를 자체 생산하여 국내 시장석권은 물론 수출까지 하고 있는 (주)태일정밀은 우선 기업이념이 “소비자의 입장에서 상품을 만든다”로 되어 있어 꾸준한 온풍기 시장의 영역을 넓혀 왔으며 품질향상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거리감 없이 접근하고 있다.

(주)태일정밀(사장 정강환)은 1983년에 창업하여 그간

부가가치가 높은 최첨단 전자 제품을 만들어 수출해 보고자 회사를 설립하였으나 숱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다. 이제는 반월, 진주, 춘천 및 미국 캘리포니아의 4개 사업장에 1,500여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거듭하여 국가경제발전에 한몫을 해내고 있다.

1985년 세계에서 2번째로 컴퓨터의 보조기억장치인 하드디스크드라이브에 사용되는 박막디스크의 시제품을 내놓은 이래 헤드, 프린터, 소재,

% 이상의 신장율을 기록한 결과 '89년에는 300억원의 매출에 4천만불의 수출실적을 올리는 기적을 만들어 냈다.

또한 기업공개를 통하여 노사관계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울사무소 및 춘천공장을 준공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생산, 영업실적은 오로지 끊임없는 기술개발을 통하여 보다 나은 품질과 생산성 향상, 경영합리화를 통한 원가절감으로 저렴하고 또 완벽, 안전, 경제, 신용제일주의를 바탕으로 좋은 제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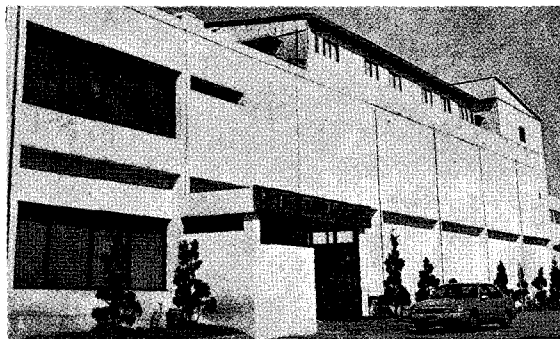


◀ 조원작 이사

전자, 금속사업부 등에서 생산 품목을 확장하여 연평균 200

적기에 공급하고자 하는 노력의 댓가였다.

동사에서 7년간 온풍기 판매를 전담하고있는 조원작 대표이사는 기자재 개발기금을 조성하여 생산자와 업체가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할 뿐 아니라 축산부분도 농업부분과 마찬가지로 리스형태건 농·축협 신용대출 기능을 좀 더 활성화시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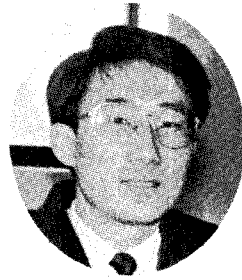
본사 및 ▶ 공장전경

즉 사용자가 부담없이 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여건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고있다.

현재는 국산 기자재를 연구·개발하여 완전 국산화를 이룩하여도 가격 경쟁면(즉 외국에서 기계를 수입하여 국내 시판 하는 것이 싸다)에서 불리하여 국내시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앞으로 저렴한 축산기자재 생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5년간 온풍기 판매를 위해 밤낮없이 뛰어다니는 구진모 대리는 입사당시 온풍기를 양계장에 팔기위해 무조건 뛰다 보니 규모가 커 보이는 채란농장만을 쫓아 다녀 허탕을 쳐야 했다는 경험담과 함께 이제는 능숙한 양계부문의 자동화에도 “척척박사”가 다 되어 특히 열풍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전달에 주력하고 있다.

그는 특히 열풍기 사용에 있어 각 농장마다 계사형태가



◀ 구진모 대리

다르기 때문에 위치나 구조 또 각 열풍기 나름대로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사에 적당한 온풍기를 양축가가 구입하여 사용할 것을 당부하기도 한다.

요즘은 어느 분야건 축사의 형태가 시설 자동화에 따른 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겨울철에 온풍기의 하자가 발생할 경우 일시에 그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피해액도 상당히 커지고 있다.

따라서 온풍기 선택도 중요하지만 세심한 관심(환기문제, 적당한 온도, 습도, 스트레스)이 매우 중요하며 설치후 2~3년이 되면 애프터서비스를 받아 전반적인 사항을 체크해야 온풍기를 열효율이 좋은

상태로 하는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다.

대부분의 열풍기는 원예용으로 제작되어 초창기에는 CO₂ 발생기로 활용되다 열공급원으로 다시 연구개발되어 축사에 까지 공급되기 시작 하였음을 볼 때 어떤 온풍기를 사용하더라도 용도에 맞는가를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이미 (주)태일정밀에서도 개스 온풍기까지 개발하여 양돈·양계장에 보급하는 단계에 있다. 세계적인 종합정보기기회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축적하고 있어 국내 시장에서는 물론 수출시장에서도 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양계**



달걀하나 건강하나
동그랗게 웃는 하루